

154kV 변압기 ULTC(탭 철펜) 실종사건

김 방 규 | 전선도전기(주) 사장

70년대 초 부산 D변전소 신설변압기 시험 가압중 ULTC에 사고가 발생했다. 전력공급에 차질이 난 것은 물론 대체품 조달이 문제였다. 외자로 도입된 변압기인 것이다. 긴급히 제품을 수소문한 결과, 같은 제품으로 미설치 중인 것이 대전 가오리 변전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긴급 수송지시가 내려졌고 대전지점에 비상 수송작전이 내려져 늦은 저녁에 출발하였다.

운전기사가 가는 동안 졸지 말라고 커피를 블랙으로 한사발 먹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도착 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탭 철펜 해체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정작 도착해야 할 물건은 감감 무소식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부산지점과 대전지점은 4월5일 식목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간부 등이 전부 출근하고 발송지점인 대전은 지점장까지 출근하여 수색에 나섰다. 당시 도로 사정은 고속도로가 대전 까지만 개통되고, 대전-부산간은 일반 국도만 있어서 양 지역은 각기 남북으로 국도 따라 수색하고 추풍령에서 합류하기로 하였다. 차량소통도 많지 않고 왕복2차선에서 4.5톤이나 되는 괴물(?) 이 눈에 안 뜨일리 없고 사실상 살살이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는 못 찾은 것이다.

“그러면 하늘로 사라진 것인가”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한 간부가 책상을 쳤다. 아! 트럭 포함 높이가 4m 가 훨씬 넘으면 옥천 가기 전에 철도 밑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하고 그곳은 호남 방면일 것이니 그쪽으로 찾자는 것이다. 그래서 도상 수색이 시작되고 경비 전화로 김문소를 추적한 결과, 무주 김문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사연인 즉슨, 김문서 경찰이 아침에 출근 하다 보니 이상한(?) 화물차가 무주입구에 있는 “부강 무주” 아치문을 통과 못해 신작로 바닥을 뚫으나 결국 안되어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난리 법석을 떨더라는 것이다. 결국 일은 순식간에 풀려 부산에서 호남 쪽으로 출동, 진영 근처에서 발견 했다는 보고를 받고 끝이 났다.

당시 통신 사정이 구역만 벗어나면 우체국에 가서 전화신청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그것도 교환수에 잘 보여야 빠른 순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핸드폰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